'계절 없는 AI' 연중 방역 급하다

일단 발병땐 전염 차단 불가능…사전 예방 체계 갖춰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AI 방역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I전문가들과 농민들은 AI바이러스가 변형을 거듭해 생존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더운 날씨에도 소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겨울철 위주로 설정돼 있는 방역을 연중 상시 방역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일단 발생하면 전염 차단이 불가능해 살처분이나 매립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연중 방역 전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평균 5~6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AI가 빈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1월~2월로 설정돼 있는 AI 특별방역기간을 4~5월까지로 연장하거나 연중 방역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것과 다른 신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 수의대 송창선 교수는 10일 "지금까지 국내에서 AI 발생으로 오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없다"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AI 바이러스가 영상 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잠복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오리 등에 잔존하면서 풍토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 들어 최초로 지난 9일 영암군 신북면 종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뒤에는 반경 10㎞ 내외 나주지역 4개 농장에서 AI 감염으로 의심되는 오리·닭의 폐사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영암군에서 AI가 발생하자 마자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와 함께 반경 10㎞ 이내 9곳에 차단방역소를 설치했지만 확산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AI는 전염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 파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감염 차단이 불가능하다.

결국 방역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I 발생시 차단 방역과 양성 반응시 살처분이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 방역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암 닭 살처분 전남도 방제팀이 10일 오후 의사 AI로 확인된 영암군 신북면 한 농장의 닭 1만7천800여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닭 비실대기만 해도 가슴 철렁"

AI 전남 확산 공포…농가 "제발 음성 판정 나오길"

역학조사 결과 예의 주시

"닭이 조금만 힘없이 돌아다니거나 몇 마리라도 죽게 되면 혹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닐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긴장감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전북지역에 이어 지난 9일 영암군에서 AI가 발생하고 10일 나주에서 오리와 닭이 집단 폐사하면서 전남지역 닭·오리 농장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등 전남지역에 불어닥친 AI 공포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전남도의 역학조사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10일 오후 영암군 신북면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반경 10㎞ 내외에 있는 나주지역 농장 주민들의 폐사 신고가 잇따랐다. 폐사량이 많지 않더라도 인근지역에서 AI가 발견되자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에서 닭 6만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모(62)씨는 "오늘 아침 닭 농장에 들어가 보니 약 1천마리가 죽어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도청에 신고했다"며 "AI 발병 징후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모(53·반남면 흥덕리)씨는 "영암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폐사에 더욱 민감한데, 지난 2003년과 같이 사상 최악의 상황이 또 다시 올까봐 두렵다"며 "제발 음성 판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농장주들은 전북지역과 먼 영암군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인접지역이 아닌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영암군 신북면에서 오리 1만5천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모(44)씨는 "당국의 방역체계가 허술해서 이곳까지 내려온 것 아니냐"면서 "이대로 지속하다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동거녀 딸 성폭행 미수·초등생 성추행

파렴치범 잇따라 검거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0일 동거녀의 딸을 목 졸라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손모(52)씨에 대해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동거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동거녀의 딸 Y모(15)양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동거녀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가 한 눈 판 사이 3층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Y양의 신고를 받고 손씨를 붙잡았다.

광주동부경찰도 이날 초등학교 부근에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정모(22)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정씨를 붙잡았으나 정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초등생 성폭행 노인 5년간 신상 공개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BBK 김경준씨 징역 15년 구형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이득액, 범죄의 치밀성과 계획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과 우리 사회에 분열과 불신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교회 지하 도색작업 인부 질식 1명 중태

광주의 한 교회 건물 지하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

10일 오후 2시37분께 광주시 서구 J교회 복지관 건물 지하 1층 승강기 앞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차모(49·남구 양림동)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공사감독자 김모(54)씨가 발견했다. 차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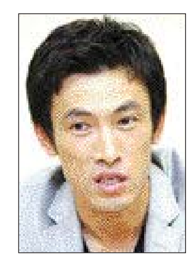
사고 당시 이들은 6㎡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시너 성분이 있는 유성페인트로 승강기 벽면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도색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7480〉 김종두

배우 유오성씨, 친구와 주먹다짐

쌍나팔



○…서울서초경찰은 10일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영화배우 유오성(39·사진)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0시40분께 서초구 잠원동 모 호텔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둘러싼 악성 소문을 확인하려는 대학동창 백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눈 밑에 상처를 냈다는 것.

○…백씨도 유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나 함께 입건됐지만, 경찰은 절친한 친구사이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고.

/연합뉴스